

# 광주출신 이미림 '호수의 여왕' 되다



기쁨의 '풍덩~' 이미림이 13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랜초 미라지의 미션 힐스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ANA 인스피레이션(총상금 310만달러)에서 우승한 뒤 입수 세리머니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 무등초교 4학년 때 입문...심재용 광주시청 육상 감독에 체력 훈련 받기도 2014년 LPGA 투어 진출 첫 해 우승...ANA 인스피레이션까지 통산 4승

"잘 모르겠어요. 믿지 못하겠어요."  
극적인 칩인 이글로 메이저 우승을 차지한 이미림(30)이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밝힌 우승 소감이다. 이미림은 14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랜초 미라지의 미션 힐스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ANA 인스피레이션(총상금 310만달러)에서 연장전 끝에 챔피언에 등극했다.  
이미림의 메이저 첫 우승 과정은 골프 역사에 남을 만큼 극적이었다.  
한 라운드에 한 번 나오기도 어려운 칩샷 홀 아웃이 무려 세 번이나 나왔다.  
6번 홀(파4) 그린 주위 칩샷으로 버디를 잡은 이미림은 16번 홀(파4)에서도 더 긴 거리 칩샷으로 버디를 추가했고, 특히 마지막 18번 홀(파5)에서는 선두에 2타 뒤처져 있다가 기적 같은 칩인 이글로

승부를 연장으로 끌고 갔다.  
두 번째 샷이 그린을 넘겨 펜스 근처까지 가는 바람에 이글은 고사하고 버디도 쉽지 않을 판이었다. 그러나 이미림의 칩샷은 그린 위에 두 번 정도 튀더니 내리막을 타고 구르며 깃대를 맞고 홀 안으로 향했다. 넬리 코르다(미국), 브룩 헨더슨(캐나다)과 함께 연장에 몰입한 이미림은 '행운의 홀'이 된 18번 홀에서 또 유일하게 버디를 잡아 1차 연장에서 그대로 우승을 확정했다.  
2009년 프로로 전향한 이미림은 2014년부터 LPGA 투어에서 뛰고 있으며 LPGA 투어에서는 2014년 2승, 2017년 1승에 이어 이번에 4승을 달성했다.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도 3승이 있는 이미림은 이 대회 전까지 메이저 대회에서는 2016년 브리티시여자오픈 공동 2위가 메이저 최고 성적이었다.

이미림은 광주 무등초등학교 4학년 때 골프에 입문했다. 광주에서 골프연습장을 운영했던 아버지 이대성(59)씨는 "미림이가 엄마 뺏속에 있을 때부터 골프선수로 키우기로 작정했다"고 했다.  
싱글 골퍼로 전국체전 광주 대표를 지낸 아버지는 딸을 골퍼로 키우기 위해 지인인 심재용 광주시청 육상 감독에게 위탁해 기초체력을 다지기도 했다.  
이미림은 2004년 문화중학교 1학년때부터 대회에 참가, 그해 제19회 광주 주니어 골프대회 3위, 다음해 에머슨퍼시픽그룹배 제7회 MBC 미디어텍 대회 생애 첫 우승의 감격을 안았다. 각종 대회에서 상위권에 들며 주니어 상비군, 국가상비군으로 발탁됐고, 고교 광주에서는 처음으로 여자골프 국가대표에 선발됐다.  
이미림은 LPGA투어에 입문해 세 번째 등판인 파운더스컵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가능성을 입증했고, 지난 2014년 8월 불과 14경기 만에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마이아클래식에서 LPGA 투어 진출 첫 해에 우승컵을 들어 올리기도 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연합뉴스

## 이미림 LPGA 'ANA 인스피레이션' 18번 홀 상황

**18번홀** 미국 캘리포니아주 랜초 미라지 미션 힐스 컨트리클럽  
파5 (4라운드) 마지막 18번 홀에서 선두에 2타 뒤진 상황

1. 칩샷 시도  
2. 두 번째 샷, 그린 넘겨 펜스 근처까지 감  
3. 칩인 이글  
그린 위에서 시도한 내리막 칩샷, 두 번 정도 튀며 홀안으로 들어감. 이후 연장1차에서 우승 확정

이미림 (30)

## 광주 FC, 전용구장 첫 승 속제 푼다

'K리그1' 오늘 홈에서 상주전  
남은 두 경기서 파이널A행 결정  
6위 서울 2점차 추격...승리 절실

'우승후보'들을 상대로 실력 점검을 받은 광주 FC가 상주전 승리를 노린다.  
광주는 15일 오후 8시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상주상무와 2020 하나원큐 K리그1 21라운드 홈경기를 치른다.  
앞선 울산-전북 2연전을 통해 K리그1 경쟁력을 입증한 광주는 임원상을 앞세워 6위 도전에 나선다. 1위 울산의 안방에서 1-1 무승부를 거뒀던 광주는 2위 전북과의 홈경기에서는 세 골씩을 주고 받은 난타전을 펼치며 3-3 무승부를 이뤘다.  
승리가 간절했던 두 팀을 상대로 승점을 더한 광주는 3위 상주전에서는 '승리'를 쟁기겠다는 각오다.  
스피드와 높이를 겸비한 광주의 화력이 믿을 구석이다. 지난 전북전에서 임원상은 특급 스피드로 전북 뒷공간을 허물며 멀티골을 장식했다. 울산에 이어 전북을 상대로 '골맛'을 보면서 임원상의 자신감이 무르익었다.  
상주전에 맞춰 펠리페의 체력도 아껴두었다. 이

번 경기는 12일 전북전에 이어 3일 만에 진행됐다. 그만큼 각 팀의 사령탑은 20-21라운드 일정을 위한 나름의 전략을 구상했다.  
박진섭 감독은 앞선 전북전에서 임원상으로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후반 펠리페를 조커로 투입하는 방식으로 전북은 물론 상주까지 동시에 잡는 전략을 구사했다. 그리고 어렵게 승리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3-3 명승부를 연출했다.  
징계로 빠진 윌리안의 자리에서는 두현석이 부지런히 뛰어나고, 임인혁도 2개의 도움을 기록하는 등 전체적인 전력 상승세다.  
광주는 자신감을 더한 임원상과 체력을 비축한 펠리페를 전면에 내세워 정규리그 마지막 홈경기 승리에 '울인' 할 예정이다.  
파이널라운드까지 이제 두 경기만 남았다. 상주전에 이어 성남 원정까지 두 경기를 통해 파이널A행이 결정되는 만큼 광주에는 승리가 절실하다.  
광주전용구장 첫승이라는 속제도 남아있다.  
7위 광주(승점 22)는 2점 차로 서울(승점 24)을 추격하고 있고, 뒤에서는 승점 1점 차 10위 부산까지 광주를 쫓고 있다. 최근 3경기에서 10골을 쏟아낸 광주의 뜨거운 화력이 승리를 통한 8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상위권, 이번주 절호의 기회

### T 타이거즈 전망대

하위권 SK·삼성·한화화 6연전  
각 팀과 상대 전적도 우세  
브룩스·터커·가농 활약 주목  
최형우, 8년 연속 200루타 -3

9월 1위 '호랑이 군단'이 상승세를 이어 5위 탈환에 나선다.  
KIA는 상위권 팀을 연달아 만난 지난주 3승 1패를 수확, 9월 승률을 0.800(8승 2패)로 높였다.  
LG, 두산과의 홈경기에서 비로 한 경기씩 치르지 못하면서 1승 1패. NC 안방에서 열린 주말 2연전은 모두 승리로 마무리했다.  
새로운 한주 KIA는 하위권 팀과의 연전을 앞두고 있다.  
15-16일 안방에서 9위 SK와 상대하는 KIA는 17-18일 대구로 건너가 삼성을 만난다. 그리고 19-20일 홈에서 최하위 한화를 맞는다.

### ■KBO중간순위 (14일 현재)

순위	팀명	경기	승	무	패	게임차
1	NC	103	60	3	40	0
2	키움	111	65	1	45	0
3	LG	107	59	3	45	3
4	두산	106	57	4	45	4
5	KT	105	58	1	46	4
6	KIA	103	56	0	47	5.5
7	롯데	103	52	1	50	9
8	삼성	106	48	2	56	14
9	SK	108	36	1	71	27.5
10	한화	106	29	2	75	33

하위권에 있는 세 팀, 상대 전적도 KIA가 앞서 있다. SK에는 8승 3패, 삼성에 7승 5패를 기록했다. 특히 한화전에서는 8승 1패로 강한 면모를 보였다. '외국인 3인방'이 9월 질주에 특특히 역할을 하고 있다.  
브룩스가 13일 NC 원정을 통해 KIA 선발진 중 가장 먼저 10승 고지에 안착했다.  
브룩스는 9월 3경기에서 21.1이닝을 3실점으로 막으며 1.27의 평균자책점과 함께 3연승을 달성했다. 가농도 9월 2경기에서 13.2이닝 3실점, 평균자책

점 1.98을 찍으며 2승을 책임졌다.  
터커는 9월 10경기에서 0.350의 타율과 함께 11타점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26홈런으로 '장타 의문'을 지우며 홈런부분 팀 내 1위, 전체 4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수비에서도 박찬호(856.1)에 이어 팀에서 두 번째로 많은 이닝(848.0)을 소화해 주고 있다.  
부상 공백을 채우는 활약도 있다  
'무주공산' 3루에서 '이적생' 김태진이 패기 넘치는 플레이로 눈길을 끌고 있다. 불펜에서는 공격성과 안정감을 겸비한 박준표가 합류, 13일 복귀전에서 1점 차 리드를 지키며 생애 첫 세이브를 수확했다.  
불펜의 엽박자는 KIA의 고만이다. 박준표가 돌아왔지만 전상현이 어깨 급성 염증으로 지난 11일 엔트리에서 빠졌다. 큰 부상은 아닌 만큼 복구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전망이다. 부담 많은 시즌을 보내고 있는 만큼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  
한편 '해결사' 최형우가 이번 주 팀 승리와 연관되는 개인 기록에 도전한다.  
최형우가 앞으로 6명의 타자를 홈으로 불러들이면 KBO리그 통산 4번째 1300타점 주인공이 된다. 통산 5번째 8년 연속 200루타에는 3개의 루타만 남겨놓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